

전북건설산업 죽썩는데 대책은 오리무중

김만기 도의원 5분 발언
“도정 무용지물” 비판
행정 실패파악도 미흡
“인센티브로 수주율 제고”



김만기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23일 전북지역 건설산업이 장기침체 속에 연쇄부도 등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건설행정청은 지역건설사의 하도급율 등에 대한 제대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역건설 경기 위축 국면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의 활성화 정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무용지물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지역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동도급제도, 분할발주제도 등의 이행율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확히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현재는 연쇄부도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더 큰 문제는 건설경기침체가 앞으로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가장 힘든 상황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수주생산 위주의 도급업으로,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유지되는 업종이다. 따라서 수주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건설업의 성쇠가 결정된다. 지역건설업체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수주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공공발주물량과 민간발주물량 모두에서 전북지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2023년 이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지역건설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건축허가 실적 역시 전국 광역자치

도 중 전북은 수년째 최하위 상태다.

앞으로 권역별 광역화가 추진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건설업체의 본사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금액(‘21년~’24년 합산)으로 분석해보면 광주·전남소재 업체들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무려 103조에 이르며, 부울경 95조, 대전·충청 88조, 대구·경북 84조인데 반해 전북은 광주·전남의 1/3수준에도 못미치는 26조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공사물량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그마저도 권유에 그칠 뿐 정확한 관리와 개선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분할발주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하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일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전통문화 체험하는 미군 장병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한미 전통문화 교류 장을 마련해 지난 22일 미 공군기지 소속 장병 40여명을 초청,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체험, 경기전 투어, 전통악기·공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5면) <사진=전북자치도>

NPS인재개발원 정읍 동지 국민연금공단 착공식 가져

연금·복지 인재양성 거점
이전 기관 지원, 정주 개선
핀테크 육성 기반 확대 추진

국민연금공단 전문 인재 양성 NPS 인재개발원이 정읍에 동지를 둔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부전동 1017번지 일원에서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기공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태현 이사장, 공단 임직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인사,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재개발원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했다.

이번 착공은 디지털 전환·초고령화 사회 대응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고품질 연금·복지 서비스 강화’ 위한 전문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다.

공단 인재개발원은 대지면적 46,316㎡, 연면적 10,785㎡ 규모에 지상 3층 교육동과 지상 6층 숙소동으로 건립된다.

교육동은 최대 2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의실을 포함한 교육장 13개와 원격 교육 스튜디오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다. 이에 연수 인프라 확충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대가 모아졌다.

숙소동 최대 228명 인원을 수용 가능하고 준공은 오는 2027년 5월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자재 사용,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설비를 갖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을 통해 장애인·임산부의 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단 인재개발원은 정읍시와 협약을 바탕으로 건립되는 만큼 향후 인재개발원 운영 시 정읍시의 농축산물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인재개발원 건립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과 업무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 본부의 전북 이전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인재개발원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단은 모든 구성원에게 전문역량 강화와 지속적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최고의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현안 공공의대 설립 정치권 협력 전북 유치 ‘총력’

공공의대 설립 논의 가속화
의료불균형 해소 핵심 대안

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닿는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

해 당위성을 높여가고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최근 들어서 일각에서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 다.

<▶2면으로 이어짐>

전북 소비자심리지수 끝없이 추락

4월 전국 평균 6%p 낮아
소비자 경기 체감 ‘빨간불’

이달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심리지수가 87.8로 나타나며 지난달보다 1.8%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조사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전북의 소비자심리지수 87.8은 전국 93.8보다 6%p 낮은 것으로 전북의 경제 심리가 전국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전북은 주요지수에서 현재생활형편

(84→83), 생활형편전망(87→85), 가계수입전망(92→90), 소비지출전망(102→100), 현재경기판단(53→51)은 전달보다 하락했으며 향후경기전망(65→69)은 전달보다 상승했다.

여타지수에서는 취업기회전망(70→71), 금리수준전망(90→93), 주택가격전망(106→114)은 전달보다 올

랐지만 가계저축전망(89→86), 가계부채전망(101→100), 임금수준전망(115→113)은 전달보다 내렸다.

현재경기판단은 51, 향후경기전망은 69로 기준치 100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성민 기자

당신이 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가 담아내는 이야기

전북의시선,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구독신청 282-9600 기사제보 282-9603

“정읍 제1일반산단 화력발전소 전면 백지화해야”

임승식 의원, 의견수렴 마춤
즉각 중단·원점 재검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읍 제1 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연소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임승식 의원

이 화력발전소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북 정읍시 제1산업단지에 1,814억원을 투자해 22MW급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짓고 있다. 사업비용 조달구조는 정읍그린파워의 자기자본 10%와 PF대출 90%의 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기자본 10% 중에서 최대지분인 45%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남부발전에 재직했던 인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다.

임승식 의원은 “국가 공기업이 사업

주체라면,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는 당연지사다”며 “하지만 다수의 정읍 시민께서는 화력발전소 건설 소식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는 지난 2020년 2월 공장부지 매입후 사업추진을 위해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당시 전북도는‘타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해 주민수용성에 대한 협의 조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업체측은 ‘지역 대책위원회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했고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전북도는 이를 근거로 2020년 7월 24일 승인했다.

하지만 임승식 의원은 “당시 업체가 제출한 추진계획에는 2018년 4월19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완료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본 합의는 2019년 7월 16일 상호 합의하에 파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주민협의체와 합의 파기된 지 불과 3일 후 ‘정읍 목재발전소 대책위원회’라는 회원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단체와 협약을 맺을 것을 명시해서 이들과의 합의가 마치 주민수용성이 완료된 것으로 제출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을 외면하고 나아가 왜곡한 채 진행됐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라며“전북자치도는 이제라도 원점 재검토에 나서야 하며, 한국남부발전은 즉각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정읍시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1면서 계속>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25일 김중훈 경제부처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을 직접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전북자치도 보건 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본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3대 핵심분야 육성

소부장·디지털 헬스케어 등
중장기 목표 사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는 바이오 의약품 중심 바이오 경제 1.0(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 신소재 및 디지털 바이오 등으로 확대해 바이오 경제 2.0(바이오의약품+바이오신소재+디지털바이오)실현을 추진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또 중장기 목표로 바이오 기업 유치 150개사, 바이오 분야 상장기업 5개사 유치, 바이오분야 인력양성 연 1,000명 확대를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레드바이오산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복지부·산업부 등 중앙부처 바이오 육성방향을 분석해 바이오 소부장,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3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암, 당뇨, 치매, 퇴행성질환 등 항노화 바이오분야를 핵심타겟으로 정하고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메카노바이오 기술과 탄소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 중재적메카노바이오기술융합연구센터를 시작으로 나노소재·정밀기술 기반 의료소재 가공 및 평가 장비 26종을 구축했다.

또 전북자치도는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36종의 첨단 장비를 구축해 탄소복합소재 기반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바이오 기업 30개사를 유치한데 이어, 2029년까지 5년간 바이오 기업 150개사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3대 핵심분야 바이오산업육성	① 첨단재생의료 분야 육성 ②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육성 ③ 바이오 소부장 분야 육성
	① 5년간 150개사 기업 유치 ②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③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바이오산업 생태계확대	① 첨단바이오 인프라 지속 확충 ②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③ 글로벌 협력 및 거점 마련 ④ 종합계획 수립 및 얼라이언스 운영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전북자치도는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글로벌 협력 거점 마련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사업발굴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

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을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됐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도 “그러나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도 제조업 중심의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와 체계 정립 없이 제조업에서 적용되던 R·D·인력양성·해외진출 관련 지원·세제지원 등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개별 법률을 통한 몇몇 분야에 국한된 발전정책이 추진됐다”며 “그 결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이 담

겨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본법 없이 개별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김관영 도지사 “차별 없는 공동체 만들겠다”

도, 장애인의 날 기념
복지 전시·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슬로건을 내세우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라엘(대표 김기중)이 주관하고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 서 진행됐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도교육감,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장애인 및 가족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수어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또 다양한 복지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 △보조기기 전시·점검 등으로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전북자치도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8,490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는 인구 수로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슬로건처럼 모든 모두가 ‘행복을 바라보고, 일상을 담으며, 희망을 이어가’는 그런 봄날을 맞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심리 24일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속행하기로 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24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본법 없이 개별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1차 심리를 실시했다.

대법원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당일 심리를 하고, 또 이를 후에 2차 심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이같은 속도있는 심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단하고 싶은가?”라면서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우회 압박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사고 없는 봄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산행전 날씨 확인등 필요한 정보수집

금지, 위험구역대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구조요청시, 국가지원번호 활용

산행에 필요한 장비, 옷 식량등 준비물 철저히

타박상, 굶힘등 사고대비 구급약 준비

‘전주의 K 맛과 멋’ 베트남 호치민 사로잡는다

호치민 청년마켓서 바이전주 우수 제품 판촉전 쿵마트·K마켓 협력 물꼬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주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판촉전을 개최하며 봄 조성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 청년마켓에서 열린 ‘바이전주 우수 제품 판촉전’에 베트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지 판촉전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베트남으로 파견됐던 우뭇기 전주시장 등 전주시 경제 사절단이 현지 경제기관 및 기업들과의 통상·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5개 바이전주 우수기업이 참여한 부스에서는 시식과 제품 체험, 현장 인터뷰 등이 이어졌으며, 유통망 ‘유스마켓’ 입점 제품들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매

력으로 다가섰다.

특히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부스 앞은 종일 방문객들로 북적였으며, 시는 판촉전 직후에는 베트남 최대 로컬 마트인 ‘쿵마트(CO.OP Mart)’와 베트남 내 최대 한인마트인 ‘K마켓’을 직접 찾아가 바이어와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쿵마트 MD들과의 만남에서는 현지 소비 성향과 가격대, 베트남 내 물류 유통 구조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최근 베트남의 트렌드에 전주 기업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K마켓 관계자들은 “베트남에서는 한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전주만의 스토리와 브랜드 감성이 잘 묻어나는 제품이라면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들 2개 마트의 경우 베트남 전역에 걸쳐 촘촘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전주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입점과 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주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판촉전을 개최하며 봄 조성에 나섰다. <사진=전주시>

출장은 전주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한 현장이었다”면서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류와 판로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전문가 및 수출 대행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유통망 판로개척단은 오는 24일까지 유스마켓 등 현지 유통망 관

계자들과 함께 이번 판촉전에 대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스마켓을 비롯한 맞춤형 현지 마케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 ‘아로비드’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바이전주’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쿠뮤필름스튜디오, 전주국제영화제 후원사 협약

전주 프로젝트 공식파트너 개발 기획비 등 지원키로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파트너로서 전주를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로 만드는 데 동행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영화 ‘아바타’와 ‘몰란’ 등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한국 법인인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대표 피터 유)가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지난 21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주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주관하는 전주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지원을 약속했다.

‘전주 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가 기획·개발 단계에 있는 우수한 한국 및 국제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개

발부터 제작, 해외 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산업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수많은 국내외 영화 제작자들이 전주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 파트너를 찾고, 실질적인 제작 자원을 확보해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있어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는 이러한 전주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로서 △전주 프로젝트 개발 기획비 후원 △전주 프로젝트 선정작 중 국내 1편, 해외 1편에 촬영 스튜디오인프라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지난해 10월 전주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1월부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위탁운영을 시작하며 전주시와 함께 영화 산업 기반 조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피터 유 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 대표는 “전주에 법인을 설립한 만큼 지역 영



화제와 호흡을 같이 해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최근 전주대학교와 함께 한·중·뉴 합작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으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과 더불어 이번 전주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독립영화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 관계자는 “(주)쿠뮤필름스튜디오코리아의 참여는 전주 프로젝트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전주가 ‘영화를 만드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 서해안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올해 첫 검출

치사율 50%·12~72시간잠복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올해 처음 전북 서해안에서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이 감염병은 서해안 지역 해수와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된다.

또 사람간의 직접 전파는 없지만 ‘간 질

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돼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병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평균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장저하, 구도, 설사’ 등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로 피부 ‘부종, 발적, 반상 출혈, 수포, 괴양’ 등의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연구원은 군산,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는 반드시 85℃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 후 섭취 △5℃ 이하에서 저온 보관 △해수에 손이나 피부 상처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경식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한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세대별 소방시설 자율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세대별 소방시설 자율점검’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방문 점검이 어려운 세대도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아파트 앱을 통해 모바일로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자율 점검 참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율점검 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세대 내에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같은 경보설비 △완강기, 하향식 피난사다리 등 피난설비가 갖춰져 있다.

이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위치 표시가 명확한지, 소화기 압력은 적정인지 등을 확인해, 점검표에 ‘양호’ 또는 ‘불량’으로 체크하면 된다.

강봉화 서장은 “소방 점검은 전문가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입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집을 돌보는 시대”라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화재를 막고, 나아가 이웃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꾸러미’ 매진

손경화 센터장 “출산 지원 사업 확대해 나갈 것”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2025 행복나눔 출산꾸러미’ 나눔 행사 신청 첫날에 조기 마감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출산을 앞둔 예비 보호자와 최근 자녀를 맞이한 가정이 육아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물품과 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출산꾸러미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저귀 가방 △기저귀 파우치 △가제수건 △티셔츠 △아이유스 용기 △그림책 등 10종으로 구성된 신청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또 이번 출산꾸러미에 △시간제보육 돌봄서비스 안내문 △

부모교육 프로그램 소개 △장난감 도서관 이용 안내 등을 함께 동봉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출산꾸러미는 이달 중 선정 가정에 안전하게 배송될 예정이다.

손경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출산꾸러미 나눔을 통해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육아상당, 아동 발달 지원 등 양육 정보를 담아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산불피해 복구 성금 451만원 기부

전북자치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 임직원들이 산불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415만원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은 이날 공단 이사장실에서 공단 노사와 모금회 양 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 노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뜻하지 않은 화마로 아픔을 겪은 주민들에게 공단 임직원들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0일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출범식에서 90여 개 지방공기업들과 함께 산불 피해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한 바 있다.

공단 임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재직자 총 3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경영평가 평가금의 일부를 성금으로 모금해 6057만원을 기부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환경영향평가 실무자 이해도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첫 교육을 실시했다.

23일 전북자치도는 도 및 시군의 환경·개발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열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 정례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독립 운영되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강의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국내 대표 전문가관 전문가들이 참여, 깊이 있고 실용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환경영향평가 기본 개념과 법적 절차를 시작으로 △생태환경 및 자연생태 분야의 조사·분석 기법 등 실무자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참여자 만족도 및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해 교육 내용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3월 전북 수출, 전년 동기比 0.5% 증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
5억 9,253만 달러 기록
美관세 시행 전 '반짝' 증가

전북 2025년 3월 수출은 전국 1.02% 비중을 차지하며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2025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2025년 3월 전북자치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며 작년 12월 이후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14.7% 감소한 4억 3,291만 달러 기록, 무역수지는 15,962만 달러 흑

자를 나타냈다.

전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582억 달러를 기록했다.

3월 전북특별자치도 5대 수출 품목은 농약및의약품(\$9,209만, 48.1%), 자동차(\$5,478만, -10.0%), 정밀화학원료(\$3,970만, 67.6%), 농기계(\$3,457만, 11.3%),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3,355만, 294.2%)를 기록했다.

공조기 품목은 이달 72%가량 물량이 UAE, 26%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며 처음으로 전북의 수출품목 5위권에 진입했다.

권역별 수출은 아시아, 북미, 중동, 중남미 등지로 고루 증가를 보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억 1,937만, 4.7%), 중국(9,857만, 12.6%), 베트남(\$4,511

만, 33.3%), 일본(\$2,953만, 3.6%), UAE(\$2,901만, 134.6%) 순이었다.

베트남으로의 농의약품 수출이 대베트남 수출의 45% 비중을 차지했고, 대 UAE 수출의 84%를 공조기 품목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전북의 대미수출 총액은 1~3월 지속 전월대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다수의 수출 상위권 품목들이 관세 예고 후 부과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2/10에 예고한 뒤 3/12부터 시행했다.

철강제품은 올해 2월 50% 이상 증가

후 3월에 다시 두 자릿수 규모의 감소를 보였으며, 알루미늄은 3월 한 달 수출실적이 전년 및 전월대비 3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전북의 수출 또한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음을 시사했다.

관세 시행으로 인한 타격 여부는 4월 실적이 나와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와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는 3월 중순 및 4월 초 각각 발효되어, 현재까지 발표된 3월의 수출입 실적통계만으로는 가시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교육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완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전북 지역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및 위탁 협약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을 포함해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약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방식 △위탁 지원사업 현황 △협약 절차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

정을 존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향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학적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자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은 권역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래, 도내 위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통합관리기술 ‘농업로봇’ 확산 이끈다

영농 보조 로봇 3종 개발
방제, 운반, 모니터링
농촌 고령화·인력난 해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환)은 농업생산인력 감소 극복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단계(재정)별 로봇 기술 적용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며 농업로봇 도입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모니터링)) 3종을 개발했으며, 이들 로봇을 연

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어하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농업인이 컴퓨터·휴대전화에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해 로봇 작업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로서 주요 기능은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 영농 관리’ 3가지다.

로봇 관리= 로봇 위치, 작업 속도, 이동 거리 등 현재 농업로봇 작업 상태 알려주는 기능.

작물 관리= 모니터링 로봇이 취득한 영상 정보 기반으로 현재 수확할 수 있는 열매 수량, 위치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

디지털 영농 관리= 각 로봇 작업 상황과 작물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일 자동으로 작업 정보 제공.

이번에 개발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우선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도 적용했다. 이들 농업로봇은 통합 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산업표준을 기반으로 공통된 기술을 적용해 개선한 것이다.

또 시스템 고장 가능성 확률을 나타내는 안전무결성 수준(SIL) 2등급 제어기를 적용해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을 0.1~1% 미만으로 낮춰 농가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반 로봇은 작업자 진행 속도에 맞춰 따라다니며 수확 작업을 도와주며 수확과 동시에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손쉽게 생산량 관리가 가능하다.

모니터링 로봇의 열매 인식 정확도는 93.8%, 수확 시기 예측 정확도는 97.7%에 달한다. 수확 가능 여부, 수확 시기 정보는 농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

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했다. 토마토 재배 농가 3곳에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 3종을 적용한 결과, 0.5헥타르 기준 연간 인건비가 방제 1,200만 원, 운반 800만 원, 모니터링 9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농업로봇 산업표준 개발과 제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표준 개발과 제정이 이뤄지면 비정형적인 농업의 특성이 반영돼 농업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와 안전 요구사항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산업표준을 적용해 개발한 농업로봇은 종류에 상관없이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우기 침수 재해 반복 선제적 대응 나선다

농식품부 예산 33억 확보
장마철 전 배수 집중 정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가 우기철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부는 배수로 내 수조 제거와 퇴적토 준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 추가 예산 33억 원('22년 15억, '23년 19억, '24년 18억, '25년 33억)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확보했다.

전국 100억 원 규모 예산 중 약 3분의 1을 전북이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총 14개 지구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까지 침수 위험지역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전북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사업 추가 예산 33억을 확보했다. 사진은 배수로 준설 현황 전(좌)과 준설 후(우)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상황 속에서, 공사의 발 빠른 대응은 반복되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특심 있는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예산 유치가 아니다.

전북지역본부는 현장 실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침수 취약 중심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 끝에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6월 말 우기 전까지 모든 사업지구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도내 농생명·바이오 스타트업 고도화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
실질적 성장 전문적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2025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23일 실시했다.

‘2025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특화역량 비육성 지원사업 일환이다.

이날 도내 농생명·바이오 및 전북 주력산업 분야 혁신 창업기업 20개사가 선정됐다.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북대학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을 통해 지난해 사업수행 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북 창업지원 중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중기부 지원 특화역량 비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5 도전! J-스타트업 창업콘테스트’를 23일 실시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다.

선정된 20개사에게는 1단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디자인 개발, 기술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 맞춤형 사업화지원과 1:1 전문 멘토링이 제공된다.

2단계 프로그램으로는 기업 진단을 통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쇼룸몰 입점, IR 컨설팅 및 투자기관 연계 등 창업기업의 초기시장 진입부터 투자유치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성장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GS리테일과의 상생협력 협약을 통한 흡소형 진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했다.

또 IR역량 고도화 및 TIPS 프로그램 연계 지원으로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덕진초서 ‘실천하는 기후행동’

‘NH그린액션’ 제9호 현판식
환경교육 프로그램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3일 전주덕진초등학교에서 실천하는 기후행동으로 건강한 지구 만들기 ‘NH그린액션’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호 전북농협 경영지원단장, 장순이 전주덕진초등학교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동관 서부분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NH그린액션 제9호’ 현판식을 갖고 학교에 친환경 안전우산 50개와 우산거치대, 업사이클링 양말 100세트 등을 전달했다.

‘NH그린액션’은 환경문제와 탄소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협은행과 세이브더칠드런이 2024년부터 전북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교실 내 비치된 페플라ستيك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실천해보고,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양말과 공용 안전우산을 학교에 전달하고 있다.

전주덕진초 학생들은 정성을 담은 손편지와 함께 ‘NH그린액션’ 업사이클링 양말 100세트를 전주덕진노인복지관에 전달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정호 단장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리배출이 지구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며 “자원의 재사용 경험을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NH그린액션 만들기, NH초록세상만들기’ 등 ESG교육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협전주시지부는 23일 한우명품관 앞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범농협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농협전주시지부>

NH농협 전주시지부, 범농협 헌혈 캠페인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NH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와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농신보 전북센터(센터장 김인순)와 함께 23일 전주김제완주축협 한우명품관 앞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범농협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 헌혈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

난 해소에 동참하고자 전주김제완주축협 및 농협전주시지부, 농신보 전북센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하양진 시지부장은 “농협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은 “금차 캠페인을 통해 헌혈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지원 정책 강화

정책설계·조직관리 등 4가지 데이터 대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23일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설한 ‘빅데이터담당’을 중심으로 전략적 기획에 기반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남궁상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진단·유형 비교와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한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비

교·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었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인식조사 분석과 데이터 유형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설계 전략 △조직 관리 전략 △인사 관리 전략 △조직문화 정착 전략 등 전략적 기획 관점에서 4가지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대안을 내놓았다.

‘정책 설계 전략’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데이터를 정책 주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성적 속성을 가진 정책과제에 대한 지표화 및 수집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직 관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담당이라는 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빅데이터담당과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관계 설정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정책 중심의 메타데이터 및 표준화 체계를 만들고 협력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인사 관리 전략’ 측면에서 부서별 데이터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평가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 문화 정착 전략’ 측면에서는 데

이터 기반 성과보고 체계를 정착하고, 성과 분석 및 환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 중심의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교·분석 대상인 인천·경기·대구·세종·서울 교육청은 데이터 활용 가치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가 높고, 실제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상운 소장은 “데이터 기반 고도화를 위한 4가지 관점의 정책적 제안은 모두 전략적 기획이라는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평균경쟁률 17.1대 1

1차 시험 6월 21일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제1회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71명 선발에 총 1,214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 17.1대 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행정직 일반은 21명 선발에 780명이 지원해 37.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3명 선발에 21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명 선발에 18명이 지원해 각각 7.0대 1, 18.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서직은 4명 선발에 58명(14.5대 1), 공업 일반직계는 2명 선발에 18

명(9.0대 1), 공업 일반직계는 2명 선발에 19명(9.5대 1), 시설 일반토목은 3명 모집에 34명(11.3대 1), 시설 건축은 3명 모집에 33명(11.0대 1)이 응시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관리 일반은 14명 선발에 98명(7.0대 1), 운전 일반은 14명 선발에 134명(9.6대 1), 운전 보훈부 추천은 2명 선발에 1명(0.5대 1)이 지원했다.

필기시험 장소는 내달 26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필기시험은 6월 21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21일 있을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8월 14일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한·미 전통문화 교류의 장 개최

군산 미 공군기지 장병 전주 한옥마을 초청 체험 행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 문화자산을 매개체로 ‘한·미’ 전통문화 교류 장을 개최했다.

‘한·미’ 문화교류는 지난해 5월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 문화체험 운영에 따른 것으로 지난 2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마련됐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이날

미 공군기지 소속 장병 40여 명을 초청해 전북지역 전통문화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미 공군 장병들에게 전북 전통문화에 이해를 높이고, 지역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미’ 전통문화 교류 장을 기획했다. 주요 목적으로는 전북 매력 알리기에 중점을 뒀다.

미 공군 장병 40여 명은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경기전

역사·문화 해설 투어 △전통 악기 체험 △전통 공예 체험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미 공군기지’ 양 기관 교류·협력 확대 위한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또한 김 원장은 올 하반기 ‘한·미’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자치도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다. 지역 문화 자산을 기

반으로 국제교류·공공외교 사업과 함께 신흥 교류 확대 및 전북 매력알리기 등 외국인과 국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미군 장병들이 전북의 전통과 정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IB 연구회 운영 ‘첫 발’

교원·교육전문가구성 30팀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IB 프로그램의 이해 및 확산 방안 연구,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IB 연구회’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공모를 통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된 30팀의 IB 연구회를 선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IB 연구회는 IB 프로그램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수업혁신을 실현하는 전북의 교육학 습공동체이다.

단순한 연수 운영이나 정보 나눔을 넘

어 IB 교육 철학에 기반한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 설계, 체계성을 갖춘 평가 자료 개발, 사고전략 개발 및 활용 등 실제 교실 내에서 실행 가능한 자료 개발과 공유가 주된 목표다.

특히 IB 연구회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교육학습공동체의 날’ 부스 참여를 비롯해 자료 전시와 토론, 수업 나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러한 실천이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전북교육이 지향하는 수업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다문화통합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은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23일 고 밝혔다.

이번 통합 지원은 지난 8월 실시된 다문화가정 학부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익산시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속 간담회 및 다문화 통역사 위촉 △학교 교육과정 통역 컨설팅을 위한 협력 교사 지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한다.

먼저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시가족센

터는 지난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복지 분야의 자원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소통(통역·번역)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내달부터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컨설팅이 본격 운영된다. 영어에 능통한 초등 교사들이 협력 교사로 참여해, 학사 일정 안내, 생활 지도 상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JBNUI지역발전연구원-전북경통원 ‘맞손’

전북대학교 JBNUI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덕철 지역발전연구원장과 윤여봉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학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성장 지원 및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공동 활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중국 산둥성 자매대학 방문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중국 산둥성 주요 도시의 자매대학을 방문해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섰다.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심영국 국제교류원장, 이동근 국제교류지원실장 등 전주대 방문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산둥성의 서시건설직업대학, 태산과기대학, 항성과기대학을 찾

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신·편입생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와 중국 자매대학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양국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전주대가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정읍시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며,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보호에 나섰다.

폐렴구균은 폐렴, 수막염, 균혈증, 부비동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한 방역 수단으로 꼽힌다.

예방접종 대상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연령에 따라 백신 종류와 접종 기관이 달라진다. 60세부터 64세까지는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서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PCV13)'을 접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다당백신(PPSV23)' 접종이 가능하다.

단백결합백신을 이미 접종한 경우에는 중복 접종이 불가하며, 다당백신 접종 대상자 중 단백결합백신을 65세 이전에 맞은 경우 1년 후, 다당백신을 맞은 경우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접종할 수 있다.

지정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종을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추진

군산시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공공 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공공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체납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며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는 관련 사업자의 신용거래 및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주게 된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도 추진한다. '지방세 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그간 여러 번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662명이며, 총체납 건수는 10,339건이며, 체납액(정리보류 포함)은 84억 원에 이른다.

일단 군산시는 행정제재에 앞서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 상담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우수 인재 키운다 지역으뜸인재 참여자 추가 모집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발굴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수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민장학재단은 '2025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73명의 교과수업 참여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고1 13명, 고2 30명, 고3 30명이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까지다. 접수는 학교장 추천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모인여행숲도서관, 여행을 담다

여행 특화도서관

기차형 서가열람 좌석 등

책을 읽으며 여행을 꿈꾸고, 추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익산시에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3일 모인공원 내에 조성된 '모인여행숲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욱 익산시장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요를 사랑하는 전복권 교사 모임 '동요샘'과 '비·비 실내악단'의 축하 공연으로 봄날의 분위기를 물씬 더했다.

모인여행숲도서관은 총 393㎡ 규모로 조성됐으며, 1,800여 권의 여행 서적과 여행 관련 자료를 갖춘 여행 특화도서관이다.

특히 세계지도 및 기차형 서가, 기차형 열람 좌석 등 여행을 주제로 꾸며진 공간이 특징이다. 아울러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색 공간으로 홀로그램을 활용한 '불명존'도 마련됐



익산시는 23일 모인공원 내에 조성된 '모인여행숲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익산시>

다.

또한 여행의 추억을 담아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대여 서비스'와 누구나 모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행 공유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 여는 시간은 오전 9시이며 닫는 시간은 화~금요일은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5시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

휴일은 휴관한다.

정현욱 익산시장은 "모인여행숲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장소를 넘어, 여행을 주제로 시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추억을 나누는 문화공간"이라며 "책과 여행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벤치마킹 이어져

모범 사례로 주목

45종 통합서비스 구축 계획

정읍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으며 군산·김제 등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사업대상자 200명을 목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읍면동 담당자 6명과 서비스 제공기관 3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두 번째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와 김제시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탐장과 담당자 등 8명이 정읍시의 사업 운영 상황을 견학하며 민관 협력 모델과 통합지원 체계를 주의 깊게 살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35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2차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다.

현재까지 시는 대상자 200명 중 125명을 발굴하고, 이 중 59명의 어르신에

게는 방문의료, 요양, 생활·주거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로 10명의 어르신이 통합지원 대상자로 결정됐다.

서비스는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재택의료센터, 정읍시물리치료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돌봄 수행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연계·제공된다.

시는 지난 2월 제결한 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정읍아산병원 등 2개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총 45종의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그동안 분산 운영되었던 '일자리정보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해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정보센터'는 군산시 일자리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작년 한 해 구인·구직상담 555건, 취업 알선 1,027건, 취업실적 183건 등 군산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에게 구인·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업무를 수행해왔다.

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해 각 기관별 협조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취업 상담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 후 시청 열린민원과 청년플 2개소에서 분산 운영되던 '일자리정보



센터'는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영화동, 구영7길 129, 1층)로 이전하게 된다.

또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벨런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용 서비스지원, 취업 지원 촉진금 사업을 추진하여 군산 산업단지 간 일자리 격차 해소와 일자리 균형 발전도 도모한다.

특히 지난날 출범한 '새만금 고용특

구 사업단'과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 고용 관련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일자리 사업의 핵심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 등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국 핸드볼 꿈나무, 익산서 '뜨거운 승부'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익산에서 전국 학생 핸드볼 선수들의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익산시는 '제80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가 오는 26일까지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과 전북제일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6일 시작한 11일간 치러지는 대장정으로 전국에서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총 78개 팀이 참여했다.

현재 대회 중반부를 지나며 중·고등부 8강전이 펼쳐지고 있어 선수들의 치열한 경합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선수들은 향후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참가를 목표로, 이번 대회를 통해 중요한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검증받고 있다. 경기마다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 학교인 원광대학교와 전북제일고등학교, 이리중학교, 이리송학초등학교가 출전해 관중들의 큰 응원을 받고 있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중·고등부 준결승전은 오는 25일, 결승전은 26일에 진행된다. 자세한 경기 일정 및 결과는 대한핸드볼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29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6건으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최종오 의원),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종선 의원),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

재구 의원) 등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이종선 의원)을 채택했다.

강경숙 부의장은 "완연한 봄기운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익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익산의 희망찬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재난안전통신망, 읍면동 전체에 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군산시가 극한 재난의 상황에서도 긴급 통신이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27개 읍면동 전체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1~22년 읍·면 지역과 수송·소통·미성동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3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4대를 추가로 구매해 27개 읍면동 전체에 보급하게 된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이란 소방을 비롯해 경찰·군·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별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이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은 영상, 고해상도 사진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관계 기관 등 다수 접속자가 상호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단말기 보급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교육도 실시했으며 교육을 통해 △도입 배경 및 관련 법 제도 △주요 기능과 제공 서비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기본 조작법 △상호통신 실습 등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읍면동과 매일 정기교신을 하고, 하반기에도 단말기 교육을 통해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통신망의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청각장애인 독서문화 체험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에 선정돼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문화 체험을 운영한다.

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한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모형 프로그램이다.

공모 선정으로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협회 정읍

시지회와 협력해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손으로 꿈꾸는 이야기 세상'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는 교육을 시작으로, 그림책 감상과 독후 활동, 문화탐방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견학 1회 △그림책 감상·독후 활동 10회 △문화탐방 1회가 계획돼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도서관과 책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읍=김정민 기자

순창, 대학생 학업 집중 생활지원금

내달 1일~20일 접수 최대 200만원 지원 경제부담 완화 학업 전념

순창군이 순창군육천장학회(이사장 순창군수 최영일)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반기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지역 내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매년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육천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하는 형태로, 대학에 재학 중인 순창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등록금 외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큰 특징으로, 매년 꾸준한 신청률을 기록하며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중에서, 2025년 상반기 공고일(4월 30일) 기준 본인과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본인이 1년 이상,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3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은 순창군청과 순창군육천장학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지원정책과 청년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2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사진=순창군>

최영일 순창군수, 인구문제 인식 캠페인

문제해결 참여·관심 촉구 순창 인구정책 효과 '주목'

최영일 순창군수는 2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부인재원 주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활동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심민 임실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순창군은 민선 8기 군정 목표 중 하나로 '정주인구 증대'를 설정하고 핵심 공약사업으로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농촌유학 확대, 대학생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순창군은 작년 말 기준 전라북도 내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한편, 최영일 군수는 이번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남강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청렴완주’ 첫발…청렴회의체 본격 가동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

완주군이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회의체 운영에 본격 나섰다.

23일 군은 유희태 군수를 비롯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회의체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공유와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고위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2025년 비전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완주 구현'을 내세우며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해 8대 전략 12개 단위 41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청렴정책은 강화·개선하고 청렴헌장 법제화, 청렴학당 운영 등 11



23일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를 비롯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회의체를 열고 운영에 본격 나섰다. <사진=완주군>

건의 신규 청렴시책 도입을 통해 반부패·청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청렴회의체에서는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1부서 1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 취약분야 발굴 및 이에 대한 개선

책을 마련해 청렴도 향상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25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완주'를 확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춘향제 ‘스춘파’, 5월 남원 달군다

본선 24개 팀 무대 경쟁 3일 청소년·4일 K팝 커버

남원시 주최로 오는 5월 3일~4일 2일간 남원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더” 본선 진출팀이 확정됐다.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더’는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3일)과 K-POP 커버댄스 경연(4일)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창작, 스트릿, 힙합, K-POP 커버 등을 아우르는 춤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을

겨울 수 있는 경연의 장이다.

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 23팀, △K-POP 커버댄스 경연 15팀이 신청했으며, 영상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각 부문 12팀이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본선 진출팀은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팀 ▷UJ쿠 ▷라이프팀 ▷웨데이 크 ▷잼스트리트 ▷티크라운 ▷THE IN ▷B&Z ▷Motion x ▷페이드인 ▷엘로 ▷세이렌 ▷보니아댄스 12팀이 선정되었고, △K-POP 커버댄스 경연팀 ▷NOIR ▷ZERO ▷어빌리티 ▷리플래쉬

▷BLUE ▷포유알 ▷빛나리 ▷익사이티드 ▷슈포노바 ▷웨이즈 ▷키즈보니타 ▷sure!댄스 12팀이 선정돼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청소년댄스 경연 본선 진출팀은 3일 오후 2시부터 경연을 통해 최종 3팀이 대상(200만원),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을 수상하고, △K-POP 커버댄스 경연 본선 진출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경연을 통해 최종 3팀이 대상(100만원), 최우수상(70만원), 우수상(50만원)을 수상하게 된다.

아울러 경연대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번기 공동급식 ‘일손 부담 덜어’

마을 공동급식 지원 설명회 영농·가정 병행 부담 낮춰

완주군이 농번기 마을 급식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23일 '2025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군은 최근 사업 대상 마을(17개소)의 이장, 조리원, 읍·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지침 및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농업인들이 가정과 영농을 병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에 식재료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농업인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는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일괄 공급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효율화를 높이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LX 남원지사 지적해결 협업 ‘호응’

‘달려가는 지적 해결사’ 올해 12개 읍면 확대 운영

남원시 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남원지사는 손을 맞잡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지적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23일 안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려가는 지적 해결사’를 운영하여 안월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LX 남원지사 임직원들은 지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시민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남원시 발전에 힘을 보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달려가는 지적 해결사’는 2024년 6개 읍·면에서 진행, 주민들의 큰 호응



을 얻어 올해는 12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남원시 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및 측량(분할·등록전환·경계복원 등)에 대해 상담부터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함께 현장 방문하는 등 시민밀착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년참여예산 사업 발굴 소통 강화

‘청년정책이장단’ 첫 회의 청년 제안 군정 반영한다

완주군이 2025년 완주 청년정책협의회 ‘청년정책이장단’의 첫 정례회의 일정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삼례시장 내 청년몰에서 열린 회의에는 20명의 청년이장들이 참여해 올 한해 동안 함께 할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 발굴 등의 안건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완주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를 다짐했다.

특히, 군은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청년분야)의 사업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청년정책이장단은 청년정책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장단의 소통·교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 청년들의 활발한 소통·교류와 참여 기회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보건소, 춘향제 맞이 남원 풍경 따라 ‘힐링 걷기’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제95회 춘향제를 맞이해 ‘춘향 사랑 가족 힐링 걷기’ 행사를 오는 5월 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춘향 사랑 가족 힐링 걷기’는 춘향제를 찾는 남원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남원 시내 일대를 걷는 활동이다.

오는 5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참가자 현장 접수를 진행하며 간단한 준비 운동을 마친 후 출발한다.

걷기 코스는 사랑의 광장에서 출발해 동림교, 남원대교, 춘향교를 잇는 약 3km 구간으로, 남원 시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걷기 행사 후에는 완주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춘향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걷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며,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연중 무료 검사

순창군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관내 농가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분뇨 부숙도 미검사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성분 검사 미실시 또는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처리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한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신청하려는 농가는 퇴비 더미의 서로 다른 위치 5~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균일하게 혼합하고, 약 500g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지리산권둘레길 역사유산 영상으로 국난극복 전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부장 황우상)은 해방 80주년을 맞이해 ‘지리산권 둘레길 국난극복의 길’ 영상을 제작해 지리산을 홍보한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주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출범 행사에 착안해 지리산둘레길 21길(275km) 구간 중 국난극복 관련 장소를 영상으로 홍보하고자 했다.

장소는 고령말 황산대첩 현장 남원시 운봉읍 황산대첩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휴정 서산대사가 수행하던 함양군 마천면 벽송사, 한국전쟁 시 희생된 산청군과 함양군 4개 마을 주민 705명을 모신 합동묘역인 산청군 금서면 산청향양사건 추모공원 세 곳이다.

3개 장소는 지리산둘레길 2코스(운봉-인월), 4코스(금계-동강), 5코스(동강~수철)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하동군(호국공원), 구례군(석주관), 장수군(능개사당)까지 확대 제작해 지리산의 의미를 홍보할 계획이다.

지리산권 둘레길은 남원, 산청, 함양, 하동, 구례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둘레길 21길(275km)과 장수트레일레이스 구간(58.7km)을 지칭하는 것으로 총 333.7km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어린이날·대둔산 축제 안전관리 총력

안전관리위원회 계획 심의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어린이날 대축제, 2025년 완주 대둔산 축제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군은 어린이날 대축제, 완주 대둔산 축제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제2차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관한 조치대책 등 최종적인 안전관리계획(안)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 방지 대책, 진출입로 불법 주정차 방지 대책,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에 관한 대책 등이다.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 어린이날 대축제, 2025년 완주 대둔산 축제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완주군>

군은 심의내용을 토대로 행사 진행 전 경찰, 소방, 전기, 시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사항에 대한 이행여

부 등을 최종 점검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인수 이서혁신 파크골프 고문, 완주군에 장학금 500만 원 기탁

유인수 이서혁신 파크골프 클럽 고문이 23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 고문은 국제라이온스 전북지구 부총재 및 감사, 전주완주 양봉협회 회장, 완주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해왔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기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완주군에 기금을 기탁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시 조종동 조경한마음지사협, 관내 소외된 이웃에 성금 기탁

군산시 조종동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임세일 부위원장과 왕영호 위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어 조종동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송학동 우리사랑교회, 취약계층·독거노인에 백미 후원

익산시 송학동은 '우리사랑교회(담임목사 남영환)'가 백미 10kg 50포(1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됐다.

송학동에 있는 우리사랑교회는 지역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독거노인, 저소득 세대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를 꾸준히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의용소방대연합회, 무주에 성금 1천만 원 기탁

대원 8,220명 십시일반 모금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윤정순 여자 회장(무주군 의용소방대장 겸임)과 공은태 남자 회장이 지난 23일 무주군을 찾아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두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들을 대표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말하며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 8,220명이 1인당

5천 원씩 모금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돕는 데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도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은 산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복구 지원을 하고 각종 행사 시에는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전주병원 영경후원회, 저소득층 위한 물품 후원

1천만원 상당 옷라면 등

전주병원 영경후원회(회장 박경희)는 23일 전주시를 찾아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물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병원 영경후원회는 2019년 설립 이후 보건의로 취약계층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건강나눔영

경후원회 박경희 회장, 박선용(쥬경국메디칼 대표, 김상호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기부됐다. 기부물품은 아동용 수면조끼 450벌, 라면 80박스, 음료 10박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주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경희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익산 동산동 주민자치위, 지역에 봄을 더하다

익산시 동산동 주민들이 만든 맥문동 정원이 봄날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국명)와 함께 23일 아름다운 지역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유천 맥문동 꽃길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주민 등 40여 명이 모여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맥문동을 심었다.

'유천 맥문동 꽃길 만들기'는 2023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이번 활동으로 기존 식재 지역을 보완하고 추가 구간에 정원을 조성해 더욱 풍성한 꽃길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국명 위원장은 "유천 생태지역에 조성된 꽃길이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산동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적극적인 봉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한국노총 전주시 지부, '전주함께장터' 기부금 전달

전주시 지역 노동자들이 지역 상권과 노동 취약계층을 응원하는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

전주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주시 지역지부(의장 박병철) 소속 6개 노동조합은 23일 전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철 의장 등 6개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전북은행 노동조합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휴비스 전주공장 노동조합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등 한국노총 소속 6개 노동조합은 총 6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시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 중 '노동자 기(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일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롯데리아 남원점, 학교 밖 청소년들에 햄버거 후원

롯데리아 남원점(대표 주정철)은 지난 22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햄버거 100개(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이번 기부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햄버거 후원'이라는 이름 아래 두 차례 정기적인 햄버거 후원을 통해 청소년 급식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다.

롯데리아 남원점 주정철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작은 위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아영면 아꿈부모회, 제7회 국수나눔행사

남원시 아영면 아꿈부모회(아이들의 꿈을 지지하는 부모회, 회장 윤석우)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3일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앞에서 국수나눔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수나눔잔치는 11년 전 원불교 청계교당이 아영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민과 함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누어 먹자는 취지에서 시작해 현재는 아영면 아꿈부모회에서 이어받아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제7회를 맞이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시 경암동 지사협, 꿈나무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초등학생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특화사업인 '꿈나무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이뤄졌다. 지사협은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대상자를 추천받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가전제품 화재예방

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주변관리

멀티콘센트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제품관리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전원코드를 뺀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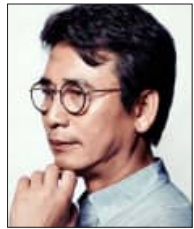
제품관리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전원코드를 꽂아주세요

〈一事一言〉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1)

유시민
작가

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 왜?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다.

지귀연 판사는 기이한 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윤석열 피고인에게도 갖가지 ‘특혜’를 주었다. 불구속 재판인데도 첫 공판부터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를 쓰게 했다.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다.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피

고인이 해야 할 대답을 대신 해주었다. 윤석열이 ‘모두진술’을 명분 삼아 80분 동안 마음대로 떠들게 내버려두었다. 언론이 불만을 쏟아내자 4월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정 스케치를 위한 촬영을 허용했지만 재판 진행 방식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전담하는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재판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심우정이 지휘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귀연 판사와 법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

시민들은 묻는다. ‘지귀연 판사는 왜?’ 여러 사람이 대학생 때부터 군복무 시기와 초임 판사 시기까지 그가 했던 독특한 행동에 대한 증언을 내놓았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형 로펌의 배후조종실을 비롯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떠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답은 아니다. 지귀연 판사의 속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질문을 바꾸는 게 좋겠다. ‘지귀연 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지귀연 판사가 왜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 사건 재판을 엉망으로 끌고 가는지 나는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할 바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행위

와 그것이 가져온 결과뿐이다. 그는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윤석열한테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나 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래도 되는가?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귀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 자신은 알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누가 협박했을지 모른다. 매수했을 수 있다. 윤석열과 같은 극우적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성일 뿐, 어떤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렇듯한 증거가 드러난다고 해도 당장 달라질 건 없다. 헌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지귀연 판사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 있다.

첫째는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해 봐야 헛일이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바이오산업 3대 핵심분야 집중 육성 절실하다

전북자치도가 ‘바이오경제 2.0’ 시대를 선포하며 레드바이오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등 3대 핵심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산업 확장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전북의 경제구조 틀을 바꾸려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오경제 1.0이 바이오 의약품 중심의 기반 구축에 주력했다면, 2.0은 기술 고도화와 융복합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기업 150개사 유치, 상장기업 5개사 육성, 연 1천명 규모의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비전은 단기 성과보다도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완성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북이 주목한 세 가지 핵심 분야는 단연 전략적이다. 우선, 메카노바이오 기술은 기계적 자극을 활용한 첨단 치료 기술로, 중재적 의료기기와 결합돼 의료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끄는 기술이다. 전북은 이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실증센터와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며 독보적 위상을 다지고 있다.

이어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는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과 바이오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생체적합성 신소재 개발과 관련 장비 구축은 의료기기 분야의 국산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및 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는 초고령 사회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전북의 도전은 또 하나의 주목할 지점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 지금, 전북은 임상 실증과 규제특례를 활용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분야를 선점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 기술 개발을 넘어, 환자 중심의 의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력과 비전을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 기반 확대, 인재양성, 연구기관 및 병원과의 연계 강화, 바이오 얼라이언스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과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은 전북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기업의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바이오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산업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북이 바이오 경제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지역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전반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 ‘바이오산업의 메카 전북’이라는 명성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지금이야말로 힘을 모을 때다.

문화재열전



남원 죽산박씨종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주거건축, 가옥
- 지정일 - 2000년 6월 23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70-1번지, 274번지

▲오늘의시

각 / 박남준

칼을 들고 목각을
해보고서야 알았다

나무가 몸 안에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쫄쫄히 햇빛을 모아

짜 넣던 시간들이
한 몸을 이루며

이쪽과 저쪽
밀고 당기고
뒤틀어가며 엇갈려서
오랜 나날
비틀려야만

비로소 곱고
단단한 무늬가
만들어진다 는 것

제 살을
온통 통과하며
상처가 새겨질 때에야
보여주기 시작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영광 출생. 전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를 발표하며 등

단했다. 2003년 전주 모악산방을 떠나 하동 약양면 동매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전주시 예술가상과 거창 평화인권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풀여치의 노래’ 등의 시집과 ‘슬슬한 날의 여행’ ‘작고 가버워질 때까지’ 등 산문집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대표전화 282-9601		인쇄인 김은주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연호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

변치 않는 신념, 바른소식을 전달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남원시 지방소멸대응 전북 유일 '우수' 160억 기금 확보

남원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머물고, 다함께 살고 싶은 고품격 남원생활'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남원시가 전북 내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16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남원시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412억원이다. 사업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원시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남원 인재학당 건립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출산·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남원시는 지리산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19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7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융합센터 구축 및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8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캠틍,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과제 공동수행 및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을 위한 전략화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바이오융합센터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소재 개발 및 연구개발(R&D) 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사업'은 스마트팜 생산, 가공, 유통, R&D를 집적화한 전후방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메카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인재 육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남원 인재학당'을 건립해 지역 학생들이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인 인재학당은 총사업비 20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8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강의실, 그룹스터디실, 체력단련실, 개방형 식당 등을 갖춘 공공형 학원으로 조성된다. 2023년 부지매입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인재학당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2026년 개관 전까지 최적의 운영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 정주 여건 개선 통한 청년 유입 증가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주거,

남원시,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

바이오 융합센터 구축 및 인재양성 적극 추진
남원 인재학당 건립 공공형 스마트 교육공간 조성
지리산 활력타운·복합 커뮤니티 조성 본격화

문화, 복지, 일자리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는 78호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활력타운과 연계된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도 눈에 띄는 성과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ALL)로' 공모사업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16억원(특교세 8억)을 투입하여 청년층 로컬 창업을 위한 창업공간과 거주시설을 구축하며, '학교복합시설' 사업에는 총 196억 원(국비 138억 원)을 투입해 미래교육실, 놀봄센터, 스터디카페 등으로 구성된 '꿈키움미래공간'과 실내체육관, 디지털스포츠 교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리산 활력타운과 해당 공모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정주 여건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지역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산후케어센터 다운'은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산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앞두고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원 신설' 특례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관련 지침 개정 및 국비 3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 남원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생아들도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원시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2025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4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안내

4.29.(화), PM 5:00 전남_목과사또골문화센터

4.30.(수), PM 5:00 광주_광주역사민속박물관

5.1.(목), PM 2:00 순천_문성마을

5.2.(금), PM 6:30 광주_수완호수공원

5.3.(토), PM 2:00 전북_임실치즈테마파크

5.3.(토), PM 3:00 제주_함덕해수욕장

5.4.(일), PM 2:00 전주_세병공원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청춘퍼레이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인동원

운영 KOOKSUNG

